



선두싸움 선점·파이널A행 '배수진'

하나원큐 K리그1 18일 폴리그 마지막 라운드
울산·전북 5점 차... 수원FC·강원 "A냐, B냐"

2022 시즌 K리그1의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파이널A, B를 가르게 될 폴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오는 18일 일제히 펼쳐진다.

울산과 전북의 선두 다툼과 ACL(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게 되는 3위 경쟁, 그리고 파이널A에 남게 될 1개팀인 6위 쟁탈전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때 승점 10점차까지 벌여졌던 울산(63)과 전북(58)의 1위 경쟁은 5점차로 좁혀지며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양팀 모두 이번 라운드에서 수원과 격돌한다. 울산은 파이널A 진출이 간절한 수원FC와 전북은 K리그1 잔류 마지막 선인인 9위(승점 34)에 있는 수원삼성과 대결한다. 파이널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선 승점 3점이 필요하다. 승패에 따라 파이널라운드를 대비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원을 근거지로한 두 팀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선두 싸움 못지않게 3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3위부터 6위팀의 경쟁

도 관심거리다. 3위에 올라있는 포항은 최하위 성남과, 4위 인천은 김천과 맞붙는다. 5위 제주는 7위 강원과 양보없는 한 판을 치른다. 특히 강원은 반드시 승리해야 파이널A에 진출할 수 있게 돼 '배수진'을 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은 올 시즌 제주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는 등 최근 맞대결에서 6경기 무패 행진(2승 4무)을 이어가고 있어 희망을 갖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제주 역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맞붙을 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원과 제주의 경기에서 강원이 승리하고, 수원FC가 패하면 강원이 6위로 파이널A행 막차를 타게 된다. 하지만 수원FC가 승리하거

나 비기게 되면 최대 5위까지도 오를 수 있게 돼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상 상위권팀들이 우세할 것으로 짐쳐지고 있지만 서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태에서 승패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등권 소용돌이에 휘말린 대구는 FC서울과 승부를 통해 강등권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널A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진 서울이 어떻게 맞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과 수원FC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기는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팀의 홈에서 펼쳐져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김연경, 10월 25일 V리그 복귀전

2022-2023시즌 일정 확정



'배구 여제' 김연경(34·흥국생명·사진)이 10월 25일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V리그 복귀전을 치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0월 22일부터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2022-2023시즌 V리그 일정을 15일 발표했다.

여자부 개막전은 10월 22일 오후 4시 수원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과 2위 한국도로공사와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두 팀은 지난달 16일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조별예선에서 만났고, 한국도로공사가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했다.

1년 만에 V리그 코트로 돌아온 김연경의 소속팀 흥국생명의 첫 경기는 10월 25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다.

김연경의 복귀전 상대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하위 팀인 페퍼저축은행이다.

남자부 개막전은 10월 2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경기로 치러진

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룬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과 준우승팀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9일 2021-2022시즌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 3차전 후 6개월여 만에 맞대결을 펼친다.

남녀부 정규리그는 각각 7개 팀이 풀리그로 6라운드를 치르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4라운드를 마친 뒤 2023년 1월 29일에는 올스타전이 예정됐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포스트 시즌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치러지며 3전2승제의 플레이오프와 7전4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우승팀이 가려진다.

다만 3위와 4위의 승점 격차가 3점 이하일 경우엔 단판으로 치러지는 준플레이오프가 열린다. 연합뉴스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

김서현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

서울고 오른손 투수 김서현(18)이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의 영예를 누렸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쥔 한화 이글스는 15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서현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은 2021시즌 팀 순위의 역순인 한화-KIA 타이거즈-롯데 자이언츠-NC 다이노스-SSG 랜더스-키움 히어로즈-LG 트윈스-삼성 라이온즈-두산 베어스-kt wiz 순으로 했다.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KIA는 중앙고 왼손 투수 윤영철(18)을 택했다. 시속 140km대 직구를 던지는 윤영철은 안정적인 제구로 올해 15경기 13승 2패 평균자책점 1.66으로 활약했고, 65%이닝 동안 삼진 99개를 잡았다.

성민규 롯데 자이언츠 단장은 "휘문고(우투좌타) 내야수 김민석(18)을 지명한다"고 말했다. '고교 상위권 투수'가 남았고, 포수 자원

도 있었지만 롯데는 '고교 1순위 내야수'를 택했다.

NC 다이노스는 전체 4순위로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던지는 경남고 우완 투수 신영우(18)를 지명했다.

SSG 랜더스는 대구고 오른손 투수 이로운(18)을 1라운드에 지명했다. 키움은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포수 겸 투수' 김건희(18·원주)를 지명했다. 김건희의 주 포지션은 포수지만 투수로도 시속 140km대 후반의 공을 뿌린다.

LG 트윈스는 경남고 포수 김범석(18)을 지명했다. 차범석 LG 단장은 "김범석이라서 뽑았다. 김범석은 한국야구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인천고 우완 이호성(18), 두산 베어스는 천안북일고 우완 투수 최준호(18)를 뽑았다.

kt wiz는 대구고 잠수함 투수 김정운(18)을 지명하며 "우리 팀 고영표의 뒤를 이을 선수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토론토 최현소 100홀런 주인공의 포효 1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탬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블라디미르 게레로(23)가 1회 시즌 28호 홈런을 터트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게레로는 이 홈런으로 팀 역사상 최연소(23세 182일) 100홀런 고지를 밟은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한 골' 간절한 손흥민 득점포 재장전

토트넘, 레스터시티와 18일 EPL 8라운드

시즌 개막 후 공식전 8경기째 골 침묵을 이어 온 손흥민(30·토트넘)이 다가오는 주말 마수걸이 득점포를 터트릴 수 있을까.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18일 오전 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레스터시티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에 나선다.

현재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3위(승점 14·4승 2무)다. 2위 맨시티와 승점이 14로 같지만, 골 득실에 서 7-14로 밀린다.

레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20개 팀 중 최하위(승점 1·1무 5패·골득실-8)로, 승점 3을 노리는 토트넘엔 좋은 상대다.

문제는 손흥민의 '침묵'이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넣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올 시즌에는 EPL 개막전에서 도움 1개를 기록한 것 외에 공식전 8경기째 골맛을 보지 못했다.

상대의 강한 견제와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와 함께 변화한 전술 등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의 변함 없는 신뢰 속에 직전 스포르팅전까지 모두 선발로 출전했지만, 부진이 길어지면 안심할 수 없다.

해리 케인, 대안 콤부세브스키와 함께 이적생 히샤를리송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콘테 감독도 최근 공격진 로테이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신에게 붙은 물음표를 지워내려면 시즌 마수걸이 골이 간절하다. 연합뉴스

무동력 씨카약으로 제주해안레저문화와 함께 합니다



제주바당을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의 카약동호회-올레카약클럽



2022.07.16~17. 금릉포구 밤 - 비양도포구 착 1박2일 카약캠핑. 9인의 카약커

정통씨카약 - 올레카약 & 올레카약클럽
씨카약은 제주도 일부 해안마을에서 좁은 해역을 정하여 관광객들이 시간단위로 즐기는 체험투명카약과 다릅니다. 씨카약은 입문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과정을 습득하여야 정정 제주 바다의 묘미를 마음껏 맛보는 카약투어링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본기술 익힘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씨카약을 타고 파란 제주바다로 나서는 제주본섬의 해안가만이 가지는 황홀경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주도 씨카약킹의 무한매력입니다.

올레카약클럽은 서귀포시 법원동에 클럽하우스를 두고 제주바다 전 해역을 투어링하는 제주카약커들의 동호회입니다. (since 2012) 온라인 네이버 카페에 일반회원 640여명, 온오프라인에는 30여명의 정회원이 있으며 바다가 허락하는 날이면 언제나 제주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씨카약을 타실까요? 올레카약클럽이 속한 올레카약은 정통 씨카약, 서프스키, 페들보드 등 3종의 강습, 장비대여 및 투어링가이드를 진행합니다. 네이버에서 [올레카약클럽](#)을 검색하세요

씨카약을 통한 해양레저 홍보비 성금에 참여한 올레카약클럽의 회원 가나다순: 카라비네인, 신희금강엔드, 장대울/느티나무아래, 최문중/레오, 권태형/몽돌, 진인태/바우모닝, 장미라, 사르곤, 박형권/서키포, 김대현/섬카, 한성모/신찬, 안성규/엘로우, 김혜영/유니콘, 이재열/제주주민, 정승모/천천히달려, 김준규/헤이븐, 장지혜 (이상 14인)
올레카약클럽 클럽하우스 | 제주도 서귀포시 법원상로 2번길 87 전화 문의 | 010-3240-2744 @jaesungheo